



2023년 12월 22일(금) 22시,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찬양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한해가 되시기를



목 차

- P2 : CGI컨퍼런스 (미국 켄터키주)
- P2 : 아시아 리더스 서밋 (태국 방콕)
- P3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70주년 총회 개막예배
- P4 : 담임목사 컬럼 “믿음과 권세”
- P4 : 순복음후나보리교회 창립20주년 감사예배

가족신문은 Web페이지와 LIN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eb페이지

공식LINE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와 세계선교 활동

2023년 11월, 세계적 기독교 리더들이 모인 3개의 세계선교대회가 연속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일본을 대표해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참석하면서 순복음동경교회도 지속적으로 세계선교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열린 CGI 컨퍼런스

2023. 10. 31 - 11. 2

CGI(Church Growth International, 국제교회성장연구원)가 주관하는 CGI 컨퍼런스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EWPC(Evangel World Prayer Center, 세계복음화기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부흥, 그 함성’(GLOBAL REVIVAL The SOUND)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CGI 컨퍼런스에서는 CGI총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가 ‘교회성장의 원리(부흥)’을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각국 대표 영적리더들과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 논의하였고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CGI(Church Growth International, 국제교회성장연구원)는 1976년에故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매년 세계 여러 주요 도시에서 세계교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해 세계교회 성장과 세계선교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CGI의 더 나은 발전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리더스 서밋

2023. 11. 7 - 8

11월 7-8일,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 ‘아시아 리더스 서밋 2023(Asia Leaders Summit, 이하 ALS)’이 “아시아 교회들의 부흥: 부흥을 위해 교회 리더들을 준비 시키다”(Revival of Asian Churches : Equipping Church Leaders for Revival)라는 주제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LS는 ‘아시아 복음화는 아시아인이 이루자’는 취지로 설립된 아시아 목회자 네트워크입니다. 2013년 홍콩에서 6개국의 기독교 리더들이 모여 시작된 운동은 올해 12개국의 기독교 리더들이 참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순복음동경교회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일본을 대표해 아시아 리더스 서밋 대성회를 비롯해 ALS미팅과 목회자 컨퍼런스 등에도 참석하여 12개국의 기독교 리더들과 선교비전을 공유하고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 논의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리더스 서밋은 일본과 같이 복음화율이 1% 채 안되는 태국 땅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과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성령운동이 일어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믿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70주년 총회 개막예배 2023. 11. 4



11월 14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의 창립70주년 개막예배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영적 부흥의 역사’(행 2:47, 19:1~7)란 주제로 “지금까지 부흥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앞으로는 우리 교단이 선봉장이 돼 온 세상의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고 설교하였고, 새롭게 2만 교회와 300만 성도 부흥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는 축사를 통해 조용기 목사와의 체험을 나누고 ‘4차원의 영성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기를’ 권면했습니다.

교단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축사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2018년 11월 서대문기하성과 여의도순복음기하성이 통합결의를 한 날,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며 이영훈 목사님이 아니면 이는 못했을 것이라고 칭찬하신 일이 어제일 같이 여겨지는데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천국에서 조 목사님께서 오늘의 70주년행사를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 사이 회원 여러분과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님, 총회장 이태근 목사님, 정동균 목사님, 김봉준 목사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 엄진영 목사님의 노력에 고개 숙여 감사드릴 뿐입니다.

1995년 조 목사님을 모시고 케냐의 나이로비에 갔을 때 이영훈 목사님도 함께 하신 기억이 있는데 7시간 차 타고 동물들이 사는 초원지대에 있는 산장에서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밤 9시쯤 누군가 방문을 노크를 하여 열어 보니까 조 목사님이셨는데 답답하니까 산책이나 하자고 하셨습니다. 산장 주변은 짐승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산장 안을 거닐다가 조그마한 풀장가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조 목사님도 저도 놀랐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목사님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라 본 별들이었구나 하였고 그 별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사님도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차원의 영성 바라봄의 법칙에 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70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이 같은 꿈을 꾸면서 80년, 90년을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본 교단이 튼튼하면 저희 해외 총회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에 대해

한국에 처음 오순절 신앙을 전파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메리 럽시입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 20년 후인 1928년에 한국선교의 사명을 갖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오순절 운동이 전파되면서 그 영향으로 1953년 4월 8일 서울 용산 남부교회에서 교단이 창립되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설립된 교단은 천막에서 시작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국내 3대 교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기하성 교단은 2008년에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통합을 향한 각고의 노력으로 10년만인 2018년 11월 20일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9월 26일 기준) 기하성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5492개의 교회, 155만 2775명의 성도들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세계 성령운동에 앞장서 복음전파와 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 컬럼 “ 믿음과 권세 ”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 종약 -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
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 마태복음 8:5~10 —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데모는 아무리 데모하
는 무리가 힘이 세다고 해도 경찰에 의해 제압됩니다. 경찰이
정부로부터 받은 권세로 제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와해된다면 경찰은 그 권세를 잃게 되고 경찰부대는
모조리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권세에는 백그라운드가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와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
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더니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라고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가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는 “말씀만 하시오면
하인이 낫겠사옵나” 라는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권세에 대
하여 자기의 경험을 통한 신앙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
다” 라고 감동하시고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믿음에 권세가 더해지면 기적
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첫째, 권세란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의 근
원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있는 하나님
이 계시다는 것, 과거도 현재와 미래도 모두 주님의 주권아래
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절대적 주권에 도전한 것이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한 것이 아담과
하와이며, 자손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자유가 주어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
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범위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
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
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
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롬 13:1~2)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사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여지고 악한 사람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고 계시 뿐입니다.

둘째, 크리스천의 권세를 아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셨으니”(요1:12) 자녀는 그 가정에 있는 것은 모두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
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며, 천사보다도 마귀보다
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세의 근본에는 모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권세의 관리자이며 진정한
권세자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리자
라면 비굴할 필요가 없으며, 주님의 권세를 기반으로 담대히
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크리스천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는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죄를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저주를 쫓아내는 권세, 천
국에 들어가는 권세입니다. 성경에는 7,000개가 넘는 하나님
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자녀의 권세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권
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할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세있는 믿음, 권세있는 기도, 권세있는 고백을 통하여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복음후나보리교회 창립20주년 감사예배 2023. 11. 23



11월 23일 오전11시,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은 타워홀후나보리
에서 열린 순복음후나보리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순복음일본총회장)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설교하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
습니다. 그리고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체험한

다양한 기적이야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예배에서는 순복음하치오지교회의 황우태
담임목사가 사회와 성경봉독을, 순복음카사이교회의
오민우 담임목사가 대표기도를, 순복음후나바시아이
린교회의 김창민 담임목사가 헌금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복음
키요세교회의 고미선 담임목사가 DCEM과 일본
총회를 위한 기도를, 순복음훗사교회의 허건호
담임목사가 순복음후나보리교회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복음후나보리교회 엔도우 타카시
담임목사의 보고와 감사인사가 있는 후,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의 축도로 성회가 마무리되었습
니다.